

“정부 전폭 지원” 총리까지 나서 지원 사격



〈제 1부〉 U대회 도시를 가다 ⑥ 태국 방콕 (상)



방콕은 1998년 제13회 아시안게임을 성공리에 치러냈다.

당시 외환위기에 빠져있던 태국은 이 대회를 성공리에 치르면서 경제를 다시 회복 국면으로 되돌려 놓는 전기를 마련했다.

태국 정부는 그 여세를 몰아 이듬해 세계 젊은이들을 ‘미소의 땅’으로 초청하는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조심스럽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1966년~1970년~1978년에 이어 4번째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도시인 만큼 각종 경기장 시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고, 태국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장과 더불어 90년대 중반 60개에 그쳤던 대학이 2000년께 130개로 늘었고, 대학 스포츠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시기여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를 바탕으로 어느 도시 못지 않게 훌륭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강했다.

전 2007 방콕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회 품 차이 마탕가 솜발(Pornchai Matanka Sombat·68·사진) 부위원장은 “당시 태국의 경제 성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대학이 급격히 높아져 팽창하는 시기여서 나라의 미래를 짚어지고 갈 젊은 대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를 주고 싶었다”면서 “특히 초대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다”고 대회 유치 배경을 설명했다.

방콕은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21회 북경 하계 U대회가 열리던 2001년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The 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에 하계 U대회 개최 신청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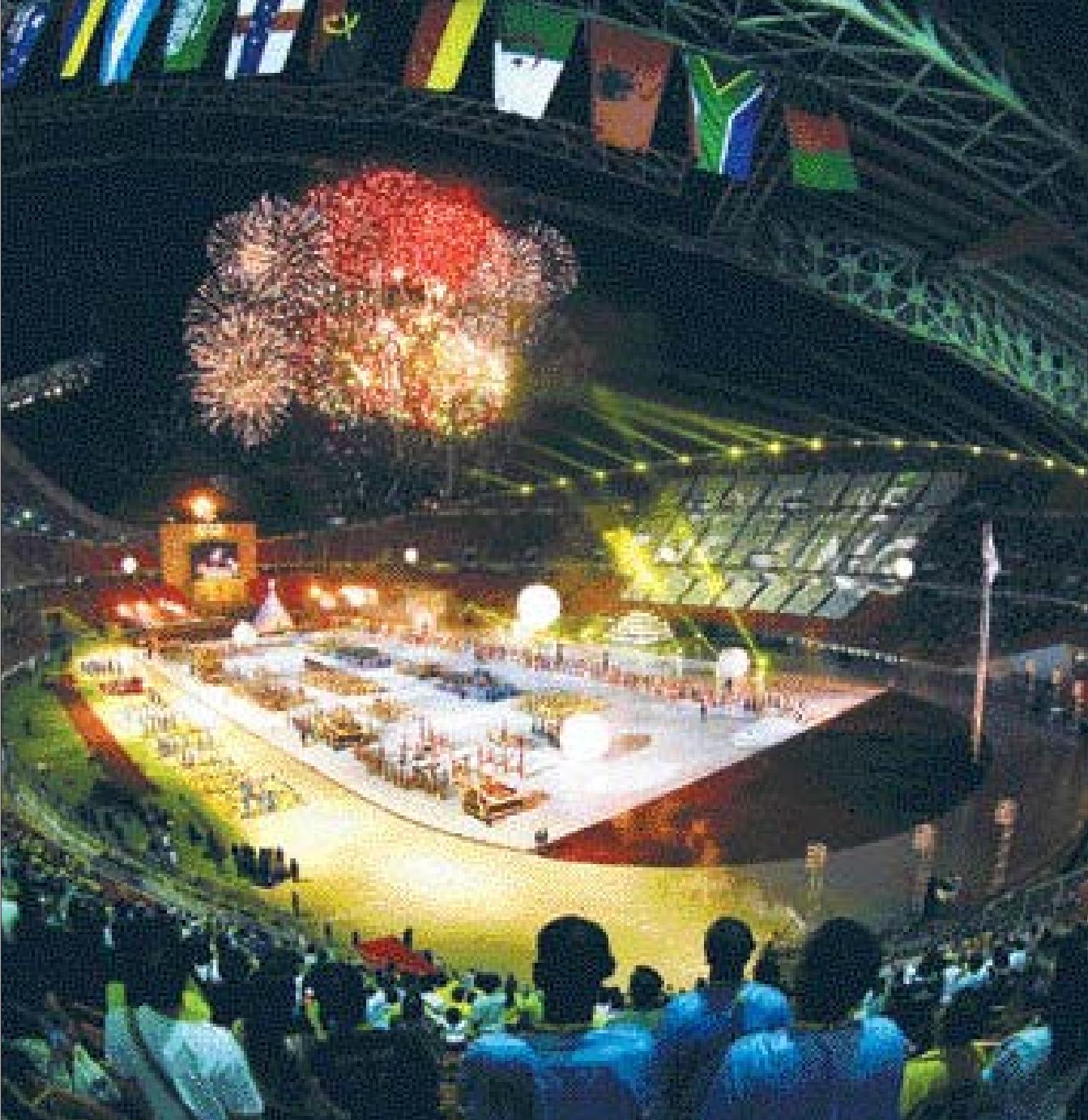
애초 2005년 하계대회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중국 북경)·2003년(대한민국 대구) 연거푸 아시아 대회에서 개최되는 바람에 2007년으로 유치신청을 연기하는 전략을 썼다.

아무리 유치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FISU 측의 대특별 안내를 생각한다면 아시아 대회에 연이어 개최지를 내어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개다가 2007년이 태국 국민에게 추앙받고 있는 푸미돈 아둔야역라마 9세 국왕의 80세 생일이 되는 해이기도 해 차라리 2007년 유치가 낫겠다는 것이 종론이었다.

2007년 유치로 전략을 수정한 방콕은 탁신 총리를 비롯한 교육부장관·방콕시장·태국 대학스포츠연맹 회장 등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쟁도시는 캐나다 세스카툰(Saskatoon)과 폴란드 포즈나인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24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2007년 8월 8일 오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Rajamangala) 국립 경기장에서 총 120개국 7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FISU 제공)

4차례 아시안게임 개최 경험 큰 힘

세계 최고 관광도시 ‘미소의 땅’ 부각

선수촌·경기장 1개대 집중...안전에 만전

(Poznan)·타이완의 가오슝(Kaohsiung)·멕시코 몬테레이였다.

유치위는 아시안게임을 4차례 치른 경험과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관광도시인 만큼 전 세계 손님들을 훌륭하게 모실 수 있는 숙박시설 등 풍부한 관광 인프라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1998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새로 지어진 각종 스포츠 경기시설도 FISU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특히 방콕은 심한 교통체증과 테러 등에 대비해 대회기간 동안

세계 선수들이 머무를 선수촌과 각종 경기장을 1개의 대학 교정에 모아서 치를 것을 제의했다.

여기에 태국 정부까지 지원사격을 나서면서 ‘방콕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시 총리였던 탁신은 조지 칼리안 FISU 위원장에게 “대회 준비와 개최·지원에 있어 한 치의 우려가 있다면 대회 유치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위기를 한 차례 겪었던 태국은 당시 수출 증가 등으로 2000년 경제성장률이 4% 이상을 기록하는 등 경제 성장이 눈부시게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여서 정부의 의지는 더욱 강했다.

결국 방콕은 2003년 1월 14일 이탈리아 도시 ‘트리에스테(Trieste)’에서 열린 세계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 투표에서 새스커튼과 몬테레이·가오슝·포즈나인을 큰 표차로 물리치고 2007년 제24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

태국 방콕=김현우 특파원 ckj@kwangju.co.kr



2002년 11월 7일 FISU 위원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2007년 유니버시아드 개최 신청 도시인 방콕에 도착해 선수촌 모형도 보고 있다.

방콕 마이돌대학 솜밭 총장

“열망 보여줄때 유치 성공”

“아시안게임은 여러 차례 치렀지만,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해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동남아시아 도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 방콕의 위상을 세계 속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꼭 대회 유치를 해야만 합니다.”

전 2007 방콕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회 품 차이 마탕가 솜발(Pornchai Matanka Sombat·68·사진) 부위원장은 “카가는 경제만큼 만큼 태국의 대학도 질적·양적 광창을 하고 있는 시기여서 이들에게 전 세계 학생들과 우정을 쌓고 좋은 경험과 기회를 주고 싶어 유치를 계획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방콕이 U대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각 대학 관계자들의 경지적인 결합·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태국 마이돌(Mahidol)대학 총장을 맡고 있는 그는 “대회 이후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조그만 관광국가가 아닌 세계 대회를 훌륭히 치른 신흉 경제국가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태국 대학생들의 사고가 국제적이고 액티브해졌다”고 자평했다.

태국 대학스포츠연맹 회장과 FISU 임원을 역임했던 그는 광주의 2013년 U대회 유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광주가 대회 유치를 위해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자치단체·시민·경제계 등이 한 뜻으로 뭉쳐 효과적인 유치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 국가들은 국민의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 대회 유치에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광주도 충분한 가능성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FISU 측이 중국 심천에 이어 또다시 아시아 국가를 선택할지 의문시된다”면서 “아시아에서 또 개최를 해야되는 이유를 잘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5210 원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원, 대전동 소방서간판)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회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증개사

☎ (02) 458-5005 원 011-604-5205
(첨단지구 부영 LC 달님 사거리)

★ 급매 매★

● 첨단 민근 비어동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투랑하고, 빠지실버사실

● 첨단 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첨단 중심 상업매매

· 광주부지방청 2008년 개정지 및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본 앞 145, 135평
비마트·호수공원 부근 유동지 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원 495만 원 매5억3천원
·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방3개 보1억2천만 원 180만 원 매4억1천만

· 대68평 건127평+주차장 투룸4 원룸8 보8800만 원 300만 원 매4200만 원 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 신기동 부영④ 부근 생신녹지 900평

· 인천동, 비아 증홍④ 부근 생신녹지 900평

· 도전동 광단 8동으로부터 450평 700평 광단, 창고 적합

· 북구 지아동 30m 도로 인근 전주면 도로집 거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법원 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소재지 평형 면적/층 갑경기 최저가

동선동 무등동 32/18평 9층 62평 2억7천

화평동 금동 50/3층 2억4천 12층 62평

두인동 부동 24/2층 5층 35평 2억5천

연재동 현대 32/6층 8천3백 5평 62평

금동동 34/28층 9천5백 6평 2억5천

우산동 현대 43/11층 1억2천 28평 49평

삼각동 그린트리문 32/12층 1억5백 7평 35평

봉선동 무등동 32/12층 9천5백 6평 2억5천

주거동 78/1층 5억2천 28평 35평

화평동 카센타 32/2층 8천3백 3평 35평

임신동 산축 352/2층 37평 21평

증평동 29평 107/92 10억 5천평

연제동 유화원 182/251 5억8천 393평

월동 도림 152/471 15억2천 848평

승원동 도림 96/479 5억2천 294평

▶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평형/면적/층 갑경기 최저가

봉선동 무등동 107/3층 10평 1억5천

화평동 78/1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2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3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4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5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6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7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8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9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10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11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12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13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14층 35평 12평 1억5천

증평동 107/15층 35평 12평 1억5천